사랑의집짓기사업제1호‘ 용인사랑의집 ’건립

양공진 브라운건설(주) 대표이사

“ 소외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의 문 활짝 열었으면 ”

건설업계의 나눔 경영과 이웃 사랑이 첫결실을맺었다. 건설업계가나눔 경영과 이웃 사랑 실천을 통한 건설업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 사랑의집짓기사업 ’이마침내그첫번째성과물을 선보였다. 이 사업의 제1호는 용인시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 용인 사랑의 집 ’. 이곳은착공9개월만인지난해11월 말 완공돼 34명 독거노인들의새로운 보금자리가되었다.

용인사랑의집은건설단체및건설업체들의성금으로지어졌다. 용인시가제공하는 대지에 약 40억원의 성금을 투입해 연면적 2,413㎡(730평)의 독거노인용 복지시설을 건설한 것이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용인사랑의집을개관후용인시에기부채납하였다.

용인 사랑의 집은 기피 대상이던 기존의 노인복지시설과는달리지역주민과함께 호흡하며이웃사랑을나누는 장소이다. 용인시 외곽이 아닌 시내 중심인 김량장동에 위치해 있으며, 주거동뿐만아니라지역 주민들과공유할수있는복지동을갖췄다. 특히, 복지동은지하1층북카페, 지상1층도서관, 지상 2층 다목적실로 구성되어 지역 청소년 및 주민들의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되고있다.

용인사랑의집은건물규모및사업비는 크지 않지만 선진화된 방식으로 건립되었다. 한미파슨스가 CM을 맡아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진행하였고, 설계는 ABLine, 그리고시공은브라운건설이수행하였다.

업계성금을모아노인복지시설을건립하는 공사였지만 입찰 경쟁은 치열하였다. 지역제한대상공사로발주했음에도 630개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는 건설경기위축에따른물량부족도있었지만, 사랑의집짓기사업1호를수주한다는의미도 컸기때문으로분석되고있다.

시공을맡았던브라운건설의양공진대표는“ 입찰을통해공사를수주한것이계기가 되었지만건설인들의성금으로사회에봉사할수있는사업에동참하게된것을매우보람차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범사업으로 처음시작한용인 사랑의집이 어려웠던상황들을잘극복하고성공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단체와 업체들이참여하여소외계층의복지향상에 기여했으면좋겠다는바람을드러냈다.

양공진대표는사랑의집짓기사업이앞으로더욱활성화되기위해서는이사업에 대한해당주민들의이해와사랑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용인 사랑의 집을 지으면서 지자체가 대지를 제공하고 건설업계가 성금을 모아 지역의 소외 계층을 위해추진하는사회공헌사업임에도불구하고 현장 부근 주민들의 입장이 전혀 달라 처음에매우당혹스러웠다고말했다. 조그만 소음에도 공사를 못하게 하고, 피해예상을우려하여안전진단을먼저제안해도 응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는 등 공사진척자체가어려웠다는것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일종의 NIMBY로 보았다.“ 사랑의집을주민들과함께이용할 수 있는 복지 시설로 인식하기보다 일종의 기피시설로생각하고, 집값하락이나생활 환경의악화로 여기는 것같았습니다. 이후 주민들이함께이용할수있는시설에대한 홍보등을통해주민들의인식을 바꾸어나갔지만쉽지않은일이었습니다. 앞으로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추진되는 곳에서는 이러한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보입니다. 우리사회의모든사람들이 소외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마음의 문을활짝열었으면합니다. ”

한편, 사랑의집짓기사업은용인외에전남 장성군, 충북 제천시, 인천 강화군 등에 제2차사업이추진중이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